

히타치제작소-미쯔비시중공업간 경영통합(1)

주요 협의 내용과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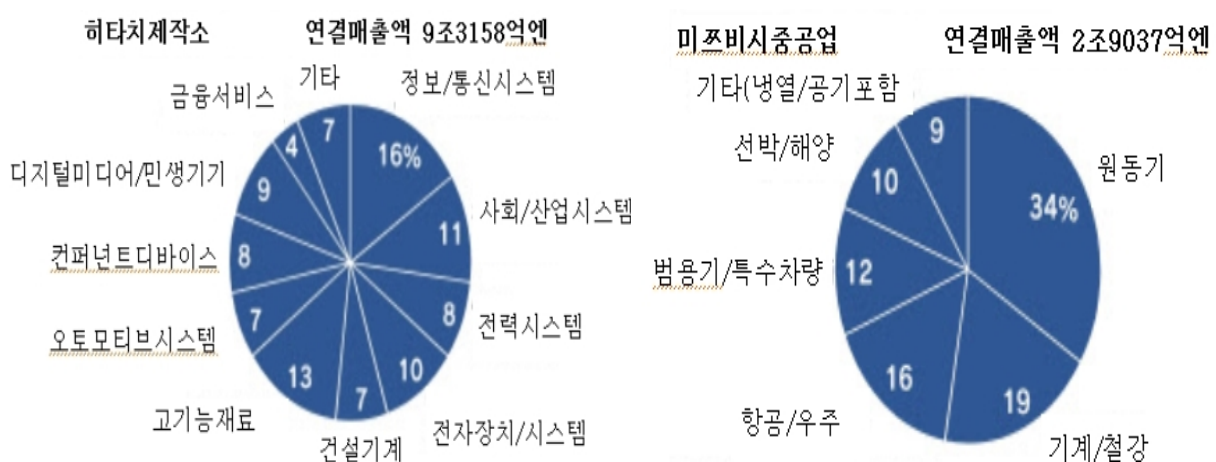
기간산업인 전기와 기계분야에서 일본 최대기업인 히타치제작소와 미쯔비시중공업이 경영통합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기본합의, 통합이 실현되는 경우 세계 최대규모의 통합인프라 기업의 탄생과 함께 일본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되찾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음.

□ 신일철-스미토모금속간 합병에 이은 대형 경영통합

- 히타치제작소와 미쯔비시중공업이 경영통합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기본합의, 2013년 봄에 신규회사를 설립하여 양사의 주력 부문인 사회인프라 사업 등을 통합하기로 함
- 이로써 원자력발전 플랜트에서 철도시스템, 산업기계, IT까지를 망라한 세계 최대규모의 통합인프라 기업이 탄생하게 되는 셈임.
- 양사의 매출액은 단순합계로 12조엔을 상회하며 양사의 경영자원을 결집시켜 신흥국을 중심으로 사회기반사업의 수주 확대를 꾀하고 있음.
- 기간산업인 전기와 기계분야에서 각각 최대 기업인 양사가 통합하여 글로벌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을 되찾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음.

- 통합대상은 원자력이나 화력발전 등 전력플랜트, 수처리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 분야, 철도차량 등 사회인프라, 정보제어 등 IT분야를 중심으로 폭넓게 협의될 전망이다. 이 모두 양사의 주력사업분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가 필요하며 2013년 4월을 목표로 신규회사를 설립할 방침임.
- 통합 형태나 미쯔비시중공업의 방위부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세한 협의가 필요함. 경영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본에서는 도요타 자동차 다음으로 매출액이 큰 규모가 될 것임.
- 히타치는 전력 등 사회인프라 사업과 IT시스템을 다 갖춘 세계 유일한 종합 전기메이커임. 세계 각국이 줄이어 계획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차세대송전망) 등을 구축하는데는 발전플랜트나 송배전기기 등 하드설비에 더하여 IT가 필수적인 바, 미국의 GE 등 세계 유력메이커들에게는 없는 강점을 지니고 있음.

히타치제작소와 미쯔비시중공업의 주요 사업



- 미쓰비시중공업은 원자력이나 화력발전 등 발전관련 기기를 폭넓게 갖추고 있는 등 중전기사업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세계적으로 성장유망분야인 풍력발전이나 지열발전, 태양광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임.
-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하여 성장분야로 자립매김한 원자력발전 플랜트사업의 장래성이 불투명하게 되는데다, 엔高로 경쟁환경마저 불리해진 것도 양사의 통합을 촉진시킨 요인임.
- 신흥국을 중심으로 사회인프라 정비가 앞으로 가속화될 것임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모건스탠리에 의하면 세계의 인프라투자규모는 2030년까지 누계로 41조달러 를 상회할 전망이다.
- 양사는 주요 제품이나 시스템 분야에서도 상호 보완가능함. 원자력발전플랜트 분야에서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세계시장에서 계속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압수형경수로로, 히타치는 비등수형경수로의 노형을 각각 담당하고 있는만큼, 각국의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 화력발전 분야에서도 미쓰비시는 부하가 적은 가스터빈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으며, 히타치는 신흥국들의 수요확대가 기대되는 석탄화력용 증기터빈 분야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음.
- 히타치와 미쓰비시는 최근 제철기계부문의 통합에 합의한 바 있으며 작년에는 화력발전기기사업의 통합에 합의한 외에, 철도시스템 개발/제조 등의 분야에서 제휴하고 있음.

□ 경영통합의 추진 배경

- 이번 양사간 경영통합의 배경으로는 무엇보다도 일본 경제 전반에 걸친 경쟁저하에 대한 위기감임. 중국이나 한국과의 경쟁 격화를 비롯하여 엔高, 혼미상태의 정국 등, 현재 일본에는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있음.
- 이번 통합은 경영에 관한 의식변화의 증거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음. 외국에서는 정부의 지원에 의해 인프라 정비 등을 추진할 수 있는데 비하여, 일본에서는 혼미상태의 정국 등으로 정부에 의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통합으로 민간주도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것임.
- 양사간 통합으로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현단계에서 미지수이나 일단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줄이고 성장성있는 사업분야를 강화하여 국제경쟁력을 높힐 수 있음.
- 히타치와 미쓰비시에 한정되지 않고 일본기업 전체에 효과가 파급될 것으로 보고 있음. 해외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일본기업에의 기대감도 커질 것으로 보여 앞으로 이번과 같은 통합은 기계, 전기에 국한되지 않고 여타 기업이나 업종에도 확산되어 기업규모의 대소를 불문하고 기업의 경영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 히타치제작소와 미쓰비시중공업간 통합 결정에는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한 대내외경영환경의 급변도 중요한 배경을 이룸. 양사는 과거 메이지 시대부터 발전소나 조선, 산업기계 등 일본의 사회인프라 구축을 담당해 옴.

- 이러한 양사가 경영통합을 하는 경우 철도나 IT 등도 겸비하여 미국의 GE나 독일의 지멘스를 상회하는 매출규모를 갖게되는 거대한 인프라기업이 탄생하게 되는 셈임.
- 따라서 최근 신흥국들의 대두로 내수중심으로 돌아선 양사의 인프라제품 시장은 다시 세계로 확대될 것인 바, 앞으로 성장은 신흥국시장 개척의 성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이들 양사는 세계 인프라 시장에서 프랑스나 한국 등 일본의 주요 라이벌들이 관민 일체가 되어 강력한 공세를 취하고 있어 이제까지 내수에만 의존해온 방식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보고, 국내 라이벌들의 기술력이나 자금력을 결집시켜 외국세에 대항할 체제구축을 서두르게 됨.
- 그런데다가 동일본 대지진과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자력사업을 성장의 기둥으로 삼아왔던 양사로서도 전략을 수정할 수 밖에 없게 됨.
- 비단, 원자력만이 아니고 화력발전이나 재생가능한 에너지, 스마트그릿에까지 에너지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제안력이 종래부터도 계속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경영통합으로 이어지게 됨.
- 양사간 접근을 급진전시킨 계기는 바로 2000년 제철기계부문의 사업통합 합의임. 양사의 강점을 융합시킨 공동출자회사「미쓰비시히타치제철기계」는 세계 최대 자리를 노리는 기업으로 성장함.
- 이 회사는 제철기계뿐만 아니라 폭넓은 분야에서 제휴가능성을 모색해 온 끝에 작년 6월 철도사업부문에서 제휴에 이어 7월에는 미쓰비시전기도 참여한 수력발전사업의 3사통합을 결정함.